



양주별산대
애사당



우리아부지
(창작탈)



작은아부지
(창작탈)



봉산탈춤 - 취발이

“공연 소품 탈 만들기 시작 벌써 40년 됐네요”

탈전시회 ‘봉산아 양주와 놀자’전 여는 윤만식 민예총 회장

갤러리에 걸린 다양한 표정의 탈에는 모두 ‘이야기’가 있다. 우스꽝스러운 춤으로 유명한 미알탈의 탈, 해학과 풍자가 가득한 봉산 탈춤의 대표 캐릭터 ‘취발이’, 여기에 점토로 만든 ‘마을 이장’이나 ‘우리 아버지’ 탈을 보고 있으면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진다.

각양각색 탈을 만든 이는 윤만식 광주 민예총 회장. 마당극 등 민중 공연예술의 터줏대감인 그가 다양한 탈을 선보이는 ‘봉산아 양주와 놀자’전(11월 5일까지 광주시 동구 소태동 갤러리 생각상자)을 열고 있다.

이번 전시는 한지로 만드는 봉산 탈춤의 전통 탈과 창작 탈, 바가지로 만드는 양주 별산대 놀이 전통 탈과 창작탈 등 모두 40여 점을 만날 수 있는 자리다.

대학시절인 1970년대 중반 봉산탈춤을 배우기 시작한 그는 이후 방학 때마다 양주 별산대, 고성 오광대, 통영 오광대 전수관 등에서 공부했다. 1977년 광주 YMCA 가면극회를, 이듬해에는 전남대 민속문화연구회(탈춤반)을 창립했다. 이후 극회 ‘광대’, 놀이패 ‘신명’ 등을 만들어 대표 등을 지냈다.

윤씨가 탈을 만들기 시작한 건 40여년전이다. ‘필요’에 의해서였다. 봉산탈춤 전수관 등에서 탈을 빌려주고 팔기도 했지만

1978년 전남대 탈춤반 창립

10년 전부터는 창작 탈 제작

내년엔 체험프로도 진행

5일까지 갤러리 생각상자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탈이 종이로 만들어진 터라 땀을 흘리고 나면 금방 해졌다.

“소품으로 필요해 만들기 시작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네요. 요즘엔 소일거리 삼아 만드는데, 작품 대본을 읽으면서 등장 인물의 성격에 맞는 탈을 만들다 보면 재미가 있습니다.”

탈 하나를 만드는 데는 보통 1주일 좀 걸리고 그가 만든 탈은 깃털, 신명, 충청도 두레, 서울 한두레 등에서 사용하고 있다. 10년 전부터는 창작탈을 제작하고 있다.

“초창기에는 마당극 배우들이 작품과 어울리는 분장을 했죠. 공연을 계속하다 보니 등장 인물의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 탈을 사용했는데 관객들의 반응이 좋았어요. 희화화된 모습들이 유쾌하니까요.”

지금은 없어진 ‘무돌 아트센터’에서 ‘우



광주 갤러리 생각상자에서 전시회를 여는 윤만식 광주민예총 회장.

리들의 얼굴전’이라는 제목으로 첫번째 전시회를 열었던 윤씨는 지난해에는 목포 마당극페스티벌에서 작품전을 갖기도 했다.

전시회를 할 때, 선물을 할 때 가장 인기 많은 건 취발이 탈이다. 모든 탈들이 주술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특히 취발이는 붉은 색 기운이 인상에 강한데다 잡귀와 잡신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점에서 인기다.

“저는 탈 제작 전문가가 아니고 공연에 술가예요. 탈을 민속문화로서 보급하고 싶은 맘이 있습니다. 전통탈은 전통탈대로, 또 창작 탈을 만들어 알리고 싶어요. 탈춤 가면극의 춤, 장단, 제당, 소리를 따와서 내용만 현대적으로 바꾼 게 바로 마

당극이예요. 농경, 왕정 사회에서 벌어졌던 이야기가 지금은 산업, 정보화 사회, 분단 사회를 소재로 한 작품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전통의 재창조 작업입니다. 제가 탈을 만드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시대의 탈로 재창조 하는 작업이죠. 그게 창작 탈입니다.”

윤씨는 내년부터는 작업실을 열고 체험 프로그램 등도 진행해볼 생각이다. 또 올해 제작했던 한지와 바가지 탈을 벗어나 나무를 활용하는 하회 별산굿과 관노 가면극 전통 탈과 창작 탈을 제작할 생각이다. 문의 062-676-898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 中작가 레지던시 결과展

2~10일
은암미술관



▶모디 작 ‘현대미술처럼 보이는 작품’

중국 작가들이 본 광주는 어떤 모습일까. 광주시립미술관이 중국 작가들을 초청해 국제교류 레지던시 결과전 ‘BRIDGE’를 2일부터 10일까지 은암미술관에서 연다. 개막식은 3일 오후 6시다.

이번 전시에는 상하이 히말라야미술관 공모를 통해 선정한 쉬즈펑, 시에이 작가와 광저우 레드토리의 모디, 양신지 아 작가가 참여한다. 레드토리는 베이징 798지구, 상하이 미술특구에 이어 중국에서 떠오르고 있는 예술 명소다.

작가들은 지난 8월부터 양림동 호랑가 시나루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며 광주와 한국을 소재로 작업한 결과물을 선보인다. 전시장을 크게 4개로 나눠 각 공간을 하나의 작품으로 구성한 점이 특징이다.

쉬즈펑 작가가 설치한 작품 ‘이동중의 구역’은 튜브처럼 생긴 동그란 철제 작품과 영상, 사진으로 구성된다. 영상에는 작가가 철제 작품을 허리에 끼고 광주 지역을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 ‘도시 개입’을 주제로 관찰자로서 도

시를 바라보고 있다.

시에이는 한국 일제강점기를 모티브로 작품을 제작했다. 20분 분량 영상작품 ‘드림연주자’는 식민지 시기 지어진 방공호에서 타악기 연주가 월익춘씨가 즉흥연주를 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폭력적인 탄압 아래 방공호가 지어진 장면은 재현했다. 모디는 ‘현대미술처럼 보이는 작품’을 제작했다. 양림동 출신 세 명의 ‘정’씨(정용성·정추·정준제) 이야기를 표현했다. 사진 등 양림동 정씨에 대한 기록들을 전시장으로 옮겼다.

양신지아의 ‘태평성세(길에 떨어진 물건도 줍지 않는다)’는 회화, 소설, 설치가 어우러진 작품이다. 낯선 곳에서 2개월간 머물며 했던 창작 경험을 허구적 글쓰기에 대입시켜 표현했다. 한편 시립미술관은 내년 5월 ‘국제레지던시 스튜디오’를 신축 개관할 예정으로, 정기적인 국제교류 프로그램들을 운영할 계획이다. 문의 062-613-715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전남문인화협회 3~9일 회원전

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지난 1995년 창립한 이래 남도 아름다운 화폭에 담고 있는 광주·전남문인 화협회가 11월3~9일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에서 제23회 회원전을 연다. ‘남도의 풍류’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원전에는 금봉 박행보, 계산 장찬홍 고문을 비롯해 회원 91명을 참여한다. 지난 1년간 작업한 작품 가장 빼어난 작품을 엄선해 선보인다.

박행보 고문은 ‘안갯속의 대나무’, 장찬홍 고문은 ‘세인봉 운자’, 김영상 고문은 ‘봄날은 간다’, 한상운 고문은 ‘코스모스 피던 날’을 찬조출품하며 격려한다.

소석 구자회 이사장은 소나무 옆에서 강아지와 산책하는 사람을 그린 ‘유회’작품을 통해 바쁜 도시 생활 속 여유를 선사한다. 김남기 이사가 작업한 ‘솔향기와 불을 깨우다’는 정경계 어울리는 운주사와 불이 등장하고 김선희 이사는 ‘귀향’에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았다.

그밖에 김은중 회원은 한국적 추상화 ‘그리고 바라보다’를 선보이고 배성환



구자회 작 ‘유회’

회원은 초록과 파랑이 어우러져 시원한 느낌을 드는 ‘수련을’을 출품한다.

한편, 문인화협회는 매년 회원전을 열며 1년간의 작업 결과물을 발표하고 제주 등 타 지역과도 교류전을 펼치고 있다. 문의 062-222-8053. /김용희기자 kimyh@



김유섭 작 ‘Blue2’

아트그룹 ‘자유로’ 초대전 갤러리 리채 11일까지

갤러리 리채가 아트그룹 자유로(대표 김유섭 조선대 교수) 회원들을 초대해 11일까지 ‘자유로’전을 연다.

1999년 결성된 ‘자유로’는 경기도 일산 지역 작가 모임으로, 당시 문화·예술 황무지였던 ‘경기도 북부 예술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평면회화를 주축으로 다양한 주제·매체·기법·형식을 시도하며 점차 전국으로 활동 범위를 넓히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회원 17명이 참여해 34점을 선보인다.

김유섭 대표는 회화 본질에 대한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Blue2’를 전시한다. 화면

왼쪽에는 ‘無’의 우주적 형태를 의미하는 하얀색을 배치하고 오른쪽에는 파란색으로 채우며 혼돈 속에서 ‘有’가 창조되는 과정을 표현했다.

기명진 회원은 형형색색 나뭇잎을 붙인

‘Falling Leaves’를 출품했다. 다양한 오브제와 기법을 통해 사물과 풍경을 독특한 시각으로 재해석했다.

그밖에 석재와 서양화 재료인 아크릴을 활용해 독특한 형태로 구축해 보여주는 윤익한, 현대적 색채로 완성한 불상을 그린 조병완 작품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62-412-0005.

/김용희기자 kimyh@



남원에서 만나는
지리산 둘레길

마을과 고개를 넘어
사람과 숲을 이어주는
지리산 800리길, 남원

파란 하늘과 붉은 산과 황금 들녘이
수채화처럼 펼쳐지는 곳
지리산 둘레길엔 가을이 한창입니다.

지리산 둘레길은 KBS 1박 2일이
함께 했던 남원
멋과 맛이 숨쉬는
가족 여행지입니다.

남원시